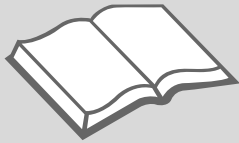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 책을 다룬 문학작품



최성일\*

책에 관한 책의 출간은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안 될 정도로 꾸준하다. 책을 다룬 책으로는 서평집, 책과 독서의 역사, 독서교육 관련서 등이 있다. 책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도 책에 대한 책의 한 갈래로 볼 수 있다. 책을 다룬 문학작품은 대부분이 소설이다. 물론, 작가들이 책을 소재로 에세이를 곧잘 쓰긴 하지만 그것은 단편적인 언급에 그치는 예가 많다. 소설을 위주로 책을 다룬 문학작품을 살펴본다. 우연찮게도 아래의 책들은 모두 문고판형으로 그리 두껍지 않다.

## 책이 책을 말하다

이탈리아 작가 안드레아 케르베이커의 소설 『책의 자서전— 어느 베스트셀러의 기이한 운명』(이현경 옮김, 열대림, 2004)의 주인공은, 제목과 부제목이 말하듯, 베스트셀러였던 책이다. 한때 명성을 드날린 ‘결작 중의 결작’이었다. ‘나’의 프로필을 간추리면, 1938년생으로 초판본이다. 꽤 여

러 쇠를 찍었으나 작가의 대표작은 아니다. 작가는 시를 쓴 적이 없는 남자 작가다. ‘나’ 스스로 헤밍웨이나 스타인벡 급의 작품이라 여기지만 노벨문학상 후보에는 들지 못했다. 지나치게 참여적이지는 않지만 인간의 상황들과 삶이라는 노동에 대해 이야기한다. 파시즘 시기의 젊은이를 주제로 하는 영화 작업에 참고자료가 되기도 했다.

책이 책을 말하는 소설의 내용은 이렇다. 20세기가 저물 무렵, 밀라노로 추정되는 이탈리아 북부 대도시의 어느 고서점에서 ‘나’는 그의 네 번째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2주 전, ‘나’는 서점 여주인의 느닷없는 선전포고를 들었다. “여기 이것들은 여름이 오기 전에 팔아버리거나 폐지로 보내버리자”는 여주인의 분명한 결정에 여점원은 좋다고 수긍했던 것이다. 헌책방 선반에서 손님의 동향을 살피며, 점찍은 중년 여성에게 추파를 던지며, ‘나’는 자신의 60년 생애를 돌아본다. ‘나’는 이 소설의 작가에게 구제되었고, 그 작가의 장서가 1만권을 돌파한 것을 계기로 자신의 지난 세월을 이야기한다. ‘역자 후기’에서 네 번째 주인을 만나기 전까지 ‘나’의 간추린 생애를 읊는다.

“세 명의 주인을 거치며 여러 가지 사건을 겪

\* 출판평론가, robli@freechal.com

게 되는 그의 첫 번째 주인은 열일곱 살의 젊은 남자였다. 그는 주인이 군대에 갔을 때 라디오에 밀려 응접실에서 쫓겨나는 운명을 겪기도 하지만, 주인이 결혼하고 그의 부인 손에 들려져 처음으로 여성을 알게 되었고 거실 책장에서 39년간, 일가의 변천을 그리고 주인의 죽음을 지켜본다. 주인이 죽고 난 뒤, 고인의 책들을 가치 없이 여기는 유족들에 의해 고물상에 팔려가게 되고 거기서 두 번째 주인을 만나게 된다.

독서광이었던 두 번째 주인의 집에서 그는 아방가르드 작가들의 작품을 알게 된다. 두 번째 주인이 다시 그를 고서점에 팔아 그는 시나리오를 쓰는 세 번째 주인을 만나게 되고 그 집에서 영화를 알게 된다. 또 컬러텔레비전의 등장으로 다시 구석으로 밀려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기계문명을 신봉하는 주인 덕택에 최신의 기계들을 구경하기도 한다. 그리고 지금, 시나리오 작가로부터 험값에 사들인 고서점에서 사형선고 증후군에 협박당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안드레아 케르베이커가 『책의 자서전』을 쓴 데에는 1989년 세상을 떠난 베니스의 저명한 정신과전문의 체자레 무자티의 장서 2천권을 고서점에서 불과 100만 리라(우리 돈 약 50만원)에 구입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장서가이자 애서가인 안드레아 케르베이커에게는 대단한 행운이었지만 비참한 책의 말로에 분개하여 이 작품을 썼다는 것이다. 또 그는 토머스 하디의 『테스』 초판본을 입수하려는 일념으로 스위스에서 규정 속도를

위반하여 적잖은 벌금을 물면서까지 파격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책을 구입하기도 했다.

### 단편소설 「책」

송경아의 소설집 『책』(민음사, 1996)의 표제작에 서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어머니가 책으로 돌아온다. 어머니의 사십구일째 날, 어머니가 교회에 다녔던 덕택에 달리 할 일이 없었던 딸은 방 청소를 한다. 책장을 정리하던 중 그녀는 그 책을 발견한다. “그 책은 지금까지 내 방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던 책이었다.” 그녀가 책을 펼친다. “그 책은 어머니였다.”



“어머니가 쓴 책이라거나, 어머니에 관한 책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죽음 후에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알 수 없지만, 어머니는 한 권의 책으로 내 방 책장 속에 들어와 있었다. 나는 처음 책장을 넘길 때부터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말투, 눈길, 희망, 걱정, 그 모든 것이 책 속에 들어가 있었다.”

나는 그 책을 당분간 방에 놔두기로 한다. 그런데 책이 점점 두꺼워지는 게 아닌가. 나는 이윽고 어머니의 책에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다. 이를 통해 인생이 하나의 책이라는 걸 깨닫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한테 읽히길 원치 않는다. “죽어서까지 살아서 기억된다는 건 너무 끔찍해.” 해독되기를 거부하는 코드, 읽히길 거부하는 책이 되기 위한 방편으로 나는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다.

“책, 수많은 책들. 전부 내 삶에 관한 책들을 쓰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는 거야. 위조본, 복사본, 판본, 앞의 반은 똑같고 뒤의 반이 틀린 두 개의 책, 같은 내용을 다루면서 문체가 다른 책들, 한 장이 틀린 책, 단어 하나가 틀린 책, 글자 하나가 틀린 책, 판본이 다른 책, 장정이 다른 책, 수많은 책을 쓸 거야. 그래서 어떻게 진짜 나-책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거야.”

단편소설 「책」은 이렇게 매듭을 짓는다. “나는 글을 쓴다. 한 글자 한 글자, 어머니의 삶, 나의 삶을 변형한다. 영원의 기록에 대항해서 의미 없는 기록을 만들고 변조한다. 모든 순간이 영원에 대한 권리가 있듯이 모든 삶은 사라질 권리가 있다. 삶의 일회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책을 쓰는 일이다.”

**독일작가들의 책 소설**

알폰스 슈바이게르트 의 『책』(이민용 옮김, 책, 1991)은 중편소설이다. 주인공 비블리는 어느 날 책으로 변신한다. “비블리는 천천히 의식을 회복했다. 그는 여전히 몸 속 이곳저곳이 어떤 힘에 의해 강하게 잡아당겨지는 것을 느꼈지만 극심했던 고통은 멈추었다. 그러나 비블리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는 별로 당황하지 않고 자신이 책으로 변해버렸음을 확인했다. 그는 프랑크푸르트 책 박람회를 생각했고 아마도 당연하게 자신이 올해의 가장 특별한 신간일 것이라고 여겼다.”

책이 된 비블리는 자신의 사상과 지혜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또한 고통 받는 수많은 책들을 대변하여 이해력 없는 독자, 출판편집자, 맹목적인 장서광 들에게 복수를 감행한다. 알폰스 슈바이게르트는 본문에 인용된 책에

관한 격언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자 이야기를 대신 하기도 한다. 작가가 인용한 책 관련 경구는 이런 것들이다.

“자신의 책이 없다는 것은 가난의 심연과 같다.”

“책은 가장 편안한 친구이다.”

“책은 가장 지혜로운 노인이고, 가장 용감한 남자이다. 책은 어머니와 같은 여자요, 가장 사랑스럽고 어여쁜 처녀이다. 일곱 권의 좋은 책만 가질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서가는 곧 인간이다. 나에게 너의 책들을 보여 달라.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말해주리라.”

“책은 아무 쓸모가 없을 때 아름다운 책이 되고 놀라운 책이 된다.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독서가를 위한 책이 아니다.”

클라스 후이징의 『책벌레』(박민수 옮김, 문학동네, 2002)는 광적인 장서벽이 범죄를 야기하는 내용의 그리 길지 않은 장편소설이다. 이 소설의 줄거리 역시 ‘역자 후기’의 신세를 진다. 이 소설에는 2세기를 격한 책벌레 두 사람이 등장한다. 한사람은 역사적 인물이고, 다른 한사람은 가공의 인물이다.

“소설의 주인공 중 하나는 실존인물 요한 게오르크 티니우스이다. 괴테와 헤르더의 시대에 작센 지방의 한 시골 목사였던 그는 지금은 잊혀진 다섯 권의 책을 썼다. 학자로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티니우스는 책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인물로서 역사의 한켠에 이름을 남겼다. 또다른 주인공은 우리 시대의 책벌레 팔크 라인홀트이다. 뮌헨의 대학생 팔크는 슈바빙의 현책방에서 우연히 티니우스의 자서전을 구입한다. 2세기 전에 살았던 자신의 정신적 동료와 만난 팔크는 이 인물의 세계에 흠뻑 빠져들어 그가 쓴 모든 책들을 손에 넣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손에 넣은 책들이 팔크에게 눈짓을 보낸다. 팔크는 200년 전의 동료가 그에게만 은밀히 보내는 메시지를 해독한다. 목전으로 다가온 세상의 몰락. 그것이 메시지의 내용이다. 그 사실을 아는 유일한 인간인 팔크는 아홉 개의 「양탄자」와 데리다에게 보낸 한 장의 엽서만을 남기고 어딘가로 사라진다.”

『책벌레』의 ‘역자 후기’는 극단적인 장서광의 예로 플로베르의 소설 『서치(書癡)』에 나오는 서적상 지아코모를 들기도 한다. “책에 대한 지아코모의 사랑은 ‘눈먼 자가 태양에 바치는 사랑’ 만큼이나 강렬하고 맹목적이지만, 그는 자신이 사 모은 책들을 결코 읽지는 않는다.” 또한, “지아코모 유이 병적인 장서광은 자신의 욕망을 끝내 충족시키지 못한다. 책을 구입하고 소유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의미인 그는 아직 소유하지 못한 책들 때문에 늘 근심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세상의 모든 책을 갖지 못한 그는 불행하다.”

### 책과 통한 여자

프랑스의 출판편집자 아니 프랑수아의 『책과 바람난 여자』(이상해 옮김, 솔출판사, 2005)는 온통 책 이야기로 채운 산문집이지만 책을 다룬 소설 못지않게 재미있다. 편집 경력 30년의 아니 프랑수아는 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표지, 띠지, 바코드, 장서표, 공공도서관 같은 책과 관련된 것이면 뭐든 관심이 많다. “이 책에서 그녀는 특히 애독자와 책이

맺고 있는 갖가지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독서광은 여러 가지 육체적 고통에 시달린다. “적어도 3킬로그램을 어깨에 메거나 등에 짊어지고 다니다 보면, 제2경추부터 미저골에 이르기까지 척추가 변형되어 망가진다. 고개를 숙이고 책을 들여다보는 모든 독서광을 호시탐탐 노리는 경부 관절통이나 책을 읽을 때면 대부분 어딘가에 괴고 있는 팔꿈치에 생기는 까끌까끌한 못이나 접촉성 피부염은 차치하고 서라도 말이다.” 아니 프랑수아는 누운 자세로 책읽기를 즐긴다.



열정적인 책읽기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그것은 귀를 약간 멀게 하고, 잠을 못 자게 만든다. “독서광은 손전등, 가로등, 깜빡이는 네온등, 자동차 미등, 촛불의 가물가물한 빛 아래에서도 눈을 비벼가며 책을 읽을 수 있다. 대부분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안경을 쓴다.” 또 독서광은 감정이 풍부하며 변덕스럽다. 그런데 독서광은 그가 읽은 내용을 다 기억할까? 그렇지

못하다. “그는 기억상실증 환자다. 새것이 옛것을 대신한다.”

아니 프랑수아가 말하는 책의 용도는 아주 다양하다. 어디에나 써먹을 수 있다. 우선, 점을 치는 데 쓰는 책이 있다. 성서를 아무데나 펼쳐 손가락으로 아무데나 짚어 신탁을 기다린다. 모기를 잡는 무기로 쓸 수도 있다. 100프랑 지폐가 끼워져 있는 책은 저축은행 구실을 하고, 긴 연휴의 전날엔 방향지시판이 되기도 한다. 불쏘시개 같은 비극적인 쓰임새도 있다.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아니 프랑수아는 책을 애지중지하는 부류다. 뒤표지에 인쇄된 바코드를 생활에 새겨진 낙인으로 여기고, 서점에서 부착한 도난방지용 금속 띠를 무척이나 싫어한다. 읽던 페이지를 표시하기 위해 한쪽 귀퉁이를 접거나 책에 주석을 다는 건 그녀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자가 있는 줄이나 새겨들 만한 표현을 발견하면, 그녀는 손톱으로 여백을 지그시 눌러 자국을 낸다.

이를 알폰스 슈바이게르트의 『책』에 인용된 에라스무스 폰 로테르담이 주장하는 책을 사랑하는 방식과 비교해보자. “책을 손도 대지 않은 채 책장에 올려두는 사람은 책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밤낮으로 손에 들고 그래서 때가 끼고, 책장의 귀들이 접혀지고 손상되며 뽁뽁하게 주석을 달아 놓는 자만이 책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냥 읽는 게 가장 좋다**

소설가 이상운의 이야기집 『책 도둑』(하늘연못, 2004)에는 책과 책 읽기를 제목으로 삼은 글이 네 개 있다. 「책 도둑」은 말한다. “책이라는 것은, 서점에 있으나, 도서관에 있으나, 우리 집에 있으나 대한민국에 있는 건 똑같다!” 두 번째 이야기는 도서증정에 관한 내용이다. “평균적으로 내 책이 거뒀들인 메아리는 2% 아래였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책 선물 받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다. 저자의 도서증정에 대한 인사치레가 고작 그 정도다.

창작은 책읽기보다 못한 행복이고, 가장 좋은 독서법은 그냥 읽는 거란다. “책읽기는 행복의 한 형태이다. 그리고 이보다 못한 행복이 창작이라는 것이다. 창작이란 우리가 읽었던 것을 잊어버

린 뒤 다시 떠올려서 생겨나는 혼합물에 지나지 않는다.” 보르헤스의 말이다. 미국의 어떤 교수는 “문학 작품에 대한 가장 훌륭한 해석은 그것을 그냥 읽어 나가는 것”이라고 했고, “그는 실제로 그의 강의를 들으려고 모여든 수강생들 앞에서, 매 학기마다 같은 작품을 그냥 읽어나갔다고 한다.” ‘이야기집’은 내용과 서술에서 픽션과 에세이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뜻이다. (104)